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입각하여 대인관계형용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468명의 대학생에게 대인관계 형용사 목록을 주고 각 형용사가 자신을 잘 묘사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두 차원, 즉 친애와 통제 차원에 해당되는 2개의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각 문항이 이들 요인에 대해 갖는 요인부하량과 공통분의 크기,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 문항의 의미 등을 검토하여 각 5문항씩의 8분원 하위척도(octant scales)를 가진 총 40문항의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IAS-40)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새로 구성된 척도는 8분원 하위척도별로 .79~.90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α)를 보였으며 대인관계 평면상에서 이론적 각도에 잘 부합되는 원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 그리고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형용사척도, 대인관계 원형모델, 친애, 통제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정 남 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2-340-3469 E-mail : woonee@hanmail.net

심리학자들은 성격 특성이나 정서의 기본 구조를 찾기 위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적은 수의 기본 요인을 찾으려 하였던 것으로, 'Big Five' 모델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접근은 심리 측정 분야의 Guttman, 성격 연구의 Leary나 Wiggins, 그리고 정서 연구의 Plutchik이나 Lorr 등에 의해 제안된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이다 (Plutchik & Conte, 1997). 성격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모델은 성격 특질이나 정서가 개념적, 수학적으로 원형으로 배열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인관계 원형 모델은 Sullivan 등의 영향을 받은 Leary(1957)가 제안하였다. 그는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이라는 두 차원을 가진 평면 위에, 대인관계 행동들을 순서 있게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에 기초한, 두 차원을 가진 대인관계 원형은 현재까지 모두 네 종류가 제안되었으나 (Leary, 1957; Lorr & McNair, 1965; Wiggins, 1979; Kiesler, 1983) 이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는 친애 차원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대인관계 원을 8등분하여, 90°위치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8분원(octants)에 PA(지배), BC(냉담-지배), DE(냉담), FG(냉담-순종), HI(순종), JK(우호-순종), LM(우호), NO(우호-지배)라는 부호를 관습적으로 부여한다.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 행동은 이 8분원들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대인관계 원에서는 바로 옆에 배열된 행동들끼리는 유사하며, 지름의 반대편으로 갈수록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된다. 예컨대 적대적이면서 지배적인 행동들은 BC 8분원에 위치하게 되고, 우호적이면서 순종적인 행동들은 JK 8분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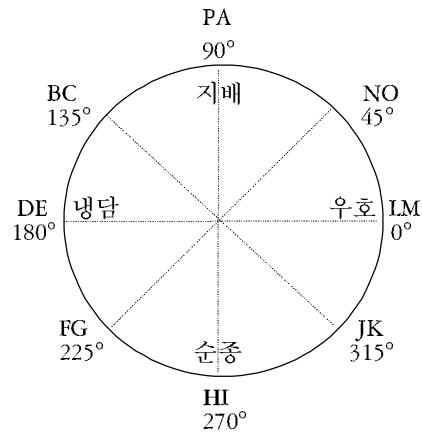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 원형 모델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행동이 대각선의 반대쪽에 위치할 때 두 행동은 이론상 가장 강함(-)의 상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서로 직교하는 두 행동은 영(0)의 상관을 가지고, 이웃한 행동들끼리는 강한 양(+의 상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검사 도구는 아직 몇 종류 되지 않는다. Wiggins (1991, 1994)의 대인관계 형용사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R; 이하 IAS-R로 약칭함), Kiesler (1987; Kiesler & Schmidt, 1991; Schmidt, Wagner, & Kiesler, 1999)의 반향적 메시지 검사의 8분원 척도(Impact Message Inventory-C), 그리고 Horowitz (1979, 1988;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의 대인관계 문제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로부터 구성된 원형 척도(IIP-C; Alden, Wiggins, & Pincus, 1990)가 그것으로, 현재까지 이들 외에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잘 부합하는 척도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IP-C를 변안하고 일부 문항을 보완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가 제작된 바 있다(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정남운, 2001a).

이 검사들 중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대인관계 문제척도와 더불어 정상인과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나 상담과정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대인관계 문제척도와 비교해 ‘문제’가 아닌 ‘특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피검사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간편하게 실시하고 채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평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인 대인관계적 경험은 때로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인관계 문제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외견상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예컨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직업 및 학업상의 문제들도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래서 역동적 심리치료 이론가들이나 대상관계이론가들(Levenson, 1995; Luborsky, 1984; Strupp & Binder, 1984)은 가능한 한 내담자의 문제를 대인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이 사회적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이 중요한 타인의 반응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는지, 또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담자의 임상적 민감성이 발휘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상담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좋은 평가 도구가 있어야 한다. 상담과정을 포함한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관한 유력한 이론 중 하나인 상보성이론(Kiesler,

1983, 1996)은 대인관계 원형모델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원인,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재현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설들은 원형 모델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좋은 측정 도구가 있을 때 더욱 엄밀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적 모델에 입각한 대인관계 특성 검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Wiggins(1979)는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근거를 두고 16개 하위척도를 가진 128문항의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AS)를 만들었다. 그 후 그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64문항으로 문항수를 대폭 줄이면서도 구조적 특성을 향상시킨 개정판(IAS-R)을 제작하였다(Wiggins, Trapnell, & Phillips, 1988). 그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여 척도의 원형성을 확인하고, 백터길이와 정신병리, 백터길이와 대인관계 문제간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었다(Wiggins et al., 1989). 즉, IAS-R이 심리측정적 관점에서 좋은 도구라는 점과,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상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국내에서는 권석만과 김정옥(미발표논문)이 IAS-R을 번안하여 대학생들에게 사용한 바 있다. 그들은 그것과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나(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번안된 이 척도가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부합되지 않음이 그 후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정남운, 2001b). 즉, 원척도와는 달리 번안된 척도의 각 하위척도들이 원형모델의 이론적 각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으며, 특정 형용사가 어떤 하위척도에 속하는가 하는 것도 원척도와 많이 달랐다. 즉, 외국의 척도를 단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번안된 척도

의 이러한 문제점은 한 나라의 언어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적합한 형용사 목록을 새로 만든 뒤에 이를 실시하여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작업이 완전히 새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원형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문항들을 선별하여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를 구성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양한 형용사 예비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대학생 집단에게 이 목록을 제시하여 자신의 특성을 평가하게 한 뒤, 그 문항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가 앞으로 이어질 타당화 작업을 거쳐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구임이 확인된다면, 우선 상담 현장에서 개별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을 측정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활용하는 다양한 상담 및 성격심리학 연구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예비문항 작성

IAS(Wiggins, 1979)의 128개 문항을 번안하였으나, 문화적 차이와 어휘의 어감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하지 않다’와 같이 번안되는 부정형 형용사를 가능한 한 제외시키고 그 대신 한덕웅(1992)의 성격특성 용어 785개와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한국어 정서용어 834개 중 대인관계적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IAS에서 번안한 51개 문항과 새로 첨가시킨 문항 163개로 총 214개의 형용사 예비목록을 작성하였다.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478명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 형용사 목록을 실시한 뒤, 미응답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468명(남 160명, 여 3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2.41세(표준편차 3.54)로 19~49세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심리학 관련 과목의 수강생들로, 연구에 참여하는 대신 연구 참여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리포트를 제출하여 그만큼의 대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분석방법 요약

피험자들에게 실시한 형용사척도 점수로부터 상관계수를 얻어 이를 요인분석하였다. 추출된 두 요인이 친애 및 통제 차원임을 확인한 뒤, 각 문항을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 대인관계 평면 위에 배열하고 각도와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그리고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각각의 8분원 당 5개씩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다음 이러한 문항선발의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하위척도의 경험적 각도가 이론적인 각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피험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대인관계 원형모델의 이론에 따라 2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추출한 뒤,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을 하였다. 그리고 이 2개의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부호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대해 높은 정적인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은 온화, 친절, 조화로우며 같이 다른 사람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요인에 부적인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은 통명스러움, 의심, 냉소와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요인은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두 번째 요인에 대해 높은 정적인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은 자기확신, 주장, 지배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부적인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은 순종, 소심, 양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도성에 맞추고 따라가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요인은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직교하는 두 차원을 적절하게 회전하여 친애차원과 통제차원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얻은 뒤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각 문항이 대인관계 평면상에서 갖는 위치, 즉 친애차원(x축)과 이루는 각도 및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text{각도}(rad) = \arctan(\text{통제}/\text{친애})$$

$$\text{벡터 길이}(vector\ length) = \sqrt{\text{친애}^2 + \text{통제}^2}$$

PA로부터 NO에 이르기까지 각 8분원의 이론적인 중심 각도는 90°, 135°, 180°, 225°, 270°

315°, 360°, 45이며(그림 1 참조), 각 문항은 x축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8분원 중 어느 하나에 배정되었다. 그런 다음 각 8분원에서 공통분(communality, 각 문항의 벡터 길이의 제곱)이 큰 순서대로 최종목록에 포함될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항들을 하위척도당 5문항씩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대신 문항의 내용적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벡터길이가 커서 두 요인과 통계적 관련성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인접한 하위척도와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의미상 변별이 어렵거나, 하위척도 내의 문항의 내용이 서로 너무 유사하거나, 대인관계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확보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α)를 살펴보았다. 하위척도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항들을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척도에는 자신만만하다, 당당하다, 주장적이다, 추진력있다, 자기확신이 있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척도는 ‘자기확신/주장’으로 명명되었다. BC척도에는 비판적이다, 당돌하다, 통제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오만하다가 포함되었다. BC척도는 ‘비판/통제’로 명명되었다. DE척도에는 불평이 많다, 통명스럽다, 냉소적이다, 배타적이다, 의심이 많다가 포함되었다. 이 척도는 ‘냉담/의심’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다. FG척도에는 비사교적이다, (대인관계에서)불안하다, 고립되다, 회피적이다, 무미건조하다가 포함되었다. 척도명칭은 ‘회피/고립’으로 하였다. HI척도는 수동적이다, 비주장적이다, 자신없다, 소심하다, 유약하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비주장/소심’으로 명명되었다. JK척도에는 순박하다, 양보하다, 순진하다, 타인중심적이다, 고분고분하다가 포함되었으며, ‘순응/양보’로 명명되었다. LM

척도에는 정답다, 친근하다, 친절하다, 이량이 넓다, 인정이 많다가 포함되었으며, ‘온화/친절’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NO척도에는 생기있다, 쾌활하다, 사교적이다, 발랄하다, 외향적이다가 포함되었고, ‘사교성/쾌활’로 명명되었다. 각 하위 척도별 해당 문항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총점과의 상관, 각도 및 백터길이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8분원 하위척도들은 각 척도별 문항의 내용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이론적 두 차원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하위척도별로 .79~.90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위척도별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문항으로 이루어진 8분원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표 1에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8분원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내적합치도 지수(α)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 2에는 8분원 하위척도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상관계수 행렬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척도들이 인접한 척도들과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원형에서 반대편에 있는 척도와

표 1. 8분원 척도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및 내적합치도(α)

| 척도 | 평균(표준편차) | α |
|----------------|------------|----------|
| 1. PA(자기확신/주장) | 4.94(1.37) | .89 |
| 2. BC(비판/통제) | 3.95(1.41) | .85 |
| 3. DE(냉담/의심) | 3.87(1.24) | .79 |
| 4. FG(회피/고립) | 3.71(1.23) | .80 |
| 5. HI(비주장/소심) | 4.24(1.54) | .87 |
| 6. JK(순응/양보) | 4.93(1.36) | .83 |
| 7. LM(온화/친절) | 5.79(1.11) | .90 |
| 8. NO(사교성/쾌활) | 5.46(1.32) | .90 |

$n=468$

는 강한 음의 상관을 가짐을 볼 수 있었다. 직교하는 척도들 간에는 0의 상관 혹은 미약한 상관만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이론적인 원형구조에 부합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상관계수 행렬로부터 최대우도법으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을 때, 초기고유치가 각각 3.19, 3.03으로 전체 변량의 77.77%를 설명함을 볼 수 있었다(그림 2 참조). 이어 두 요인을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하여 각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하위척도들의 내용을 살펴

표 2. 8분원 척도간 상관계수

| 척도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PA | 1.00 | | | | | | | |
| 2. BC | .58 | 1.00 | | | | | | |
| 3. DE | .12 | .69 | 1.00 | | | | | |
| 4. FG | -.47 | .13 | .50 | 1.00 | | | | |
| 5. HI | -.78 | -.40 | .09 | .63 | 1.00 | | | |
| 6. JK | -.49 | -.68 | -.43 | .12 | .58 | 1.00 | | |
| 7. LM | .08 | -.45 | -.58 | -.43 | -.04 | .54 | 1.00 | |
| 8. NO | .49 | .00 | -.33 | -.64 | -.48 | .01 | .60 | 1.00 |

$n=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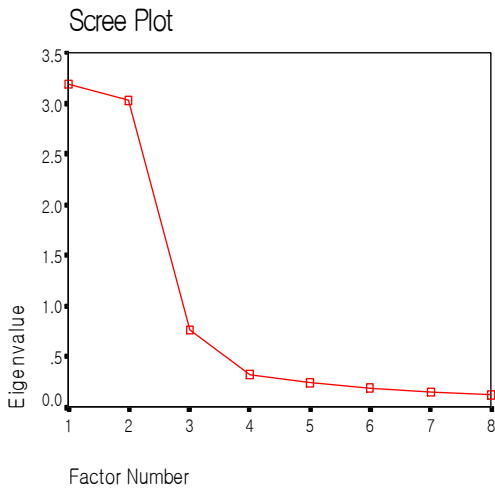


그림 2. 요인별 고유치에 대한 Scree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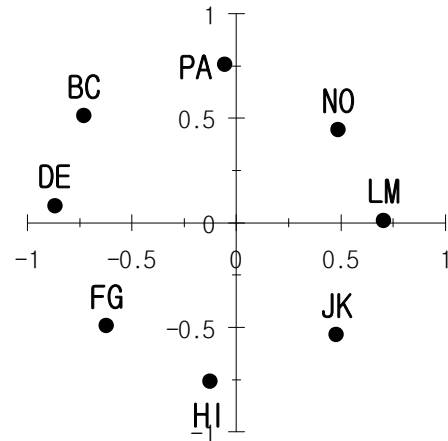


그림 3.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의 요인부하량의 도해

본 결과 첫 번째 요인은 친애차원, 두 번째 요인은 통제차원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두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2.65와 2.14로 전체 변량의 59.94%를 설명하였다. 각 8분원 척도가 두 요인에 대해 갖는 요인부하량은 표 3에, 그리고 이를 대인관계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의 요인부하량

| 척도 | 친애차원 | 통제차원 |
|-------|------|------|
| 1. PA | -.05 | .76 |
| 2. BC | -.73 | .51 |
| 3. DE | -.87 | .08 |
| 4. FG | -.62 | -.49 |
| 5. HI | -.13 | -.76 |
| 6. JK | .48 | -.54 |
| 7. LM | .71 | .01 |
| 8. NO | .49 | .44 |

n=468. 최대우도법으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함.

본 연구의 표본에서 문항선발의 절차가 적절하였다면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하위척도들은 대체로 원형에 가깝게 배열될 것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용사척도는 외견상 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견상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하위척도들의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일치 여부를 Fisher(1983)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8분원 척도가 친애차원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차이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차이에 코사인(cosine)을 취한, 코사인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Fisher(1983)는 코사인 상관계수가 실제 부합도보다 더 부풀려진 수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합도의 해석을 위하여 다음 공식,

$$A^0 = 1 - \theta / 180 \quad (\theta \text{는 비교되는 두 각도의 차이})$$

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Fisher의 A^0 는 일종의

표 4. 8분원 척도의 이론적 각도와 경험적 각도의 차이에 대한 코사인 상관과 A⁰값

| 척도 | 이론적 각도(1) | 경험적 각도(2) | (1) - (2) | cosine상관 | A ⁰ |
|-------|-----------|-----------|-----------|----------|----------------|
| 1. PA | 90.00 | 94.16 | -4.16 | .997 | .98 |
| 2. BC | 135.00 | 144.93 | -9.93 | .997 | .94 |
| 3. DE | 180.00 | 174.66 | 5.34 | .999 | .97 |
| 4. FG | 225.00 | 218.44 | 6.56 | .993 | .96 |
| 5. HI | 270.00 | 260.56 | 9.44 | .995 | .95 |
| 6. JK | 315.00 | 311.73 | 3.27 | .999 | .98 |
| 7. LM | .00 | .89 | -.89 | .999 | .99 |
| 8. NO | 45.00 | 42.30 | 2.70 | .996 | .98 |
| 평균 | | | 5.28 | .996 | .97 |

비율로서 0~1의 수치를 가지며 0은 두 각도간의 완전한 불일치를, 1은 완전한 일치를 나타낸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 구성된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의 실제 각도가 이론적 각도에 대해 약 97.1%의 높은 일치율을 나타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sher의 공식,

$$x^2_{(1)} = \sqrt{2n} \times \cos^2 \quad (n \text{은 범주의 수. 여기서는 } 8)$$

은 실제 척도가 이론적 척도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해 준다. 경험적으로 구성된 형용사척도의 각도와 이론적 각도사이의 평균 차이는 5.285였으며, 평균 코사인 상관은 .996이었다. 주어진 자료로부터 얻은 x^2 값은 영가설이 기각됨을 보여주었다, $x^2_{(1)} = 3.966, p < .05$. 즉, 새로 구성된 8분원 척도의 위치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대인관계 모델에 따른 이론적 위치와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 입각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학생 피험자들의 자기평정 자료를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특성들의 저변에 친애와 통제라는 두 차원이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차원은 대인관계 행동을 분석할 때 발견할 수 있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의 두 차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형용사척도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친애 차원에서는 한 극단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인 태도가, 다른 한 극단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거리감과 냉담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인 통제 차원에서는 한 극단에는 주장적이고 지배적인 태도가, 다른 한 극단에는 수동적이고 비주장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인관계형용사 척도의 8분원 하위척도들은 이 두 차원의 다양한 조합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하위척도들은 자기확신과 주장(PA척도), 비판과 통제(BC척도), 냉담과 의심(DE척도), 회피와 고립(FG척도), 비주장과 소심(HI척도), 순응과 양보(JK척도), 온화함과 친절(LM척도), 사교성과 쾌활함(NO척도)을 각각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에서 이 하위척도들은 적

절한 내적합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형 모델의 이론적 위치에 가깝게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특성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정자들이 특정한 개인의 대인행동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다. 대인행동 및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대개 한두 가지의 특정한 행동만을 측정하는 데 비하여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보다 넓은 범위의 대인관계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한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정신병리나 그와 연관된 개념들, 예컨대 자기애나 전이, 역전이와 같은 구성개념들의 대인관계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정신병리나 성격 측정도구와 함께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를 사용하면 대인관계 평면에서 그러한 병리나 성격 특성이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대인관계 원형 모델로부터 도출된 여러 가설들, 예컨대 대인관계 상보성 이론 등을 검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담 장면에서는 대인관계형용사 척도가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일종의 성과 측정치로도 사용될 수 있고, 특정한 치료적 접근에 잘 반응하는 내담자들을 미리 선별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척도는 내담자의 대인행동 특성과 상담 성과를 평가하고 또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치료자와 이론가들이 대인관계 특성을 정신병리의 지표로, 혹은 치료 성과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혹은 치료적 접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우울, 불안,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리나 애착유형 등의 성격 특성을 대인관계 공간에서 살펴보는 연구(예컨대 Alden & Phillips,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Gurtman, 1992)를 하였고,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로부터 작업동맹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연구(Alden & Capreol, 1993; Horowitz et al., 1988; Maling, Gurtman, & Howard, 1995; Piper, Azim, Joyce, McCallum, Nixon, & Segal, 1991)나, 치료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얻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징을 밝히는 연구(Horowitz et al., 1988; Mohr, Beutler, Engle, Shohan-Solomon, Bergan, Kaszniak, & Yost, 1990)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우리나라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와 같이 매우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과연 적절한 원형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원형구조의 부합도를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본 연구의 표본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8분원 하위척도의 위치를 이론적인 위치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문항선별의 절차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원형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문항들을 선별하여 형용사 척도를 구성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대체로 달성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구성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조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독립적인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새롭게 원형구조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원형구조가 대학생 집단을 포함한

여러 피험자 집단 및 내담자 집단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혹은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때 만족스러운 원형구조를 얻을 수 없다면 문항선별 작업을 다시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형구조를 검증하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Fisher(1983)의 절차뿐만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다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인관계 형용사척도가 다양한 임상적 증상 및 적응의 정도를 평가하는 측정치 및 상담성과 측정치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타당도와 유용성에 관한 증거들이 더 많이 수집되고 축적된다면 이 도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 실제와 연구의 양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석만, 김정옥 (2000).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개발. 미발표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 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 정남운 (2001a).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정남운 (2001b).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한덕웅 (1992).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빈도, 호오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147-171.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Alden, L. E., & Capreol, M. J. (1993).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Interpersonal problems as predictors of treatment response. *Behavior Therapy*, 24, 357-376.
- Alden, L. E., & Phillips, N. (1990).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99-513.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Fisher, G. A. (1983, September). *Coefficients of agreement for circular dat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Detroit, MI.
- Gurtman, M. B. (1992). Trust, distrust, and interpersonal problems: A circumplex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989-1002.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Horowitz, L. M.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oring procedures*.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Kiesler, D. J. (1987). *Research manual for the Impact Message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Kiesler, D. J., & Schmidt, J. A. (1991). *Octant scale version of the Impact Message Inventory: Form IIA*. Palo Alto, CA: Mind Garden.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Levenson, H. (1995).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Lorr, M., & McNair, D. M. (1965). Expansion of the interpersonal behavior cir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823-830.
- Luborsky, L. (1984). *Principle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Maling, M. S., Gurtman, M. B., & Howard, K. I. (1995). The response of interpersonal problems to varying doses o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5, 63-75.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622-628.
- Mohr, D. C., Beutler, L. E., Engle, D., Shohan-Solomon, V., Bergan, J., Kaszniak, A. W., & Yost, E. B. (1990). Identification of patients at risk for nonresponse and negative outcome in psychotherapy.
- Piper, W. E., Azim, H. F., Joyce, A. S., McCallum, M., Nixon, G. W., & Segal, P. S. (1991). Quality of object relations versus interpersonal functioning as predictors of therapeutic alliance and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432-438.
- Plutchik, R., & Conte, H. R. (1997). Introduction. In R. Plutchik & H. R. Conte (eds.), *Circumplex models of personality and emo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midt, J. A., Wagner, C. C., & Kiesler, D. J. (1999). Psychometric and circumplex properties of the octant scale Impact Message Inventory (IMI-C): A structural evalu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25-334.
- Strupp, H. H., & Binder, J. L. (1984). *Psychotherapy in a new key*. New York: Basic Books.
-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 Wiggins, J. S. (1991).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IAS)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ggins, J. S. (1994).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Wiggins, J. S., Phillips, N., & Trapnell, P. (1989).

Circular reasoning about interpersonal behavior: Evidence concerning some untested assumptions underlying class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96-305.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 517-530.

원 고 접 수 일 : 2003. 1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4. 2. 2

게 제 결 정 일 : 2004. 2. 3

K C I

Construction of the Circumplex Scales for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KIAS-40)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nstruct a set of circumplex scales for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KIAS-40). A sample of university undergraduates(n=468) was used for this purpose of the study. The item scores were intercorrelated and subjected to a factor analysis in which two familiar interpersonal factors (that is, Affiliation and Control) were extracted. The factor loadings, communalities, and thematic contents were used to select the best items for eight 5-item circumplex scales. Factor analyses of the scores for these eight scales resulted in a clear two-factor solution, accounting for 60% of the variance. A post hoc chi-square test developed by Fisher(1983) was used to evaluate the circumplex structure of the KIAS-40 in this sample. This test suggested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the empirical locations of the KIAS-40 scales and the locations predicted by circumplex theor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IAS), KIAS-40, circumplex model, affiliation, control*

부록 ·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문항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총점과의 상관, 각도 및 벡터길이

| 하위척도 문항 | 평균(표준편차) ¹⁾ | 총점과의 상관 ²⁾ | 각도 ³⁾ | 벡터길이 ⁴⁾ |
|----------------|------------------------|-----------------------|------------------|--------------------|
| 1. PA(자기확신/주장) | | | | |
| 자신만만하다 | 4.74(1.71) | .80 | 87.11 | .83 |
| 당당하다 | 5.01(1.56) | .76 | 90.98 | .82 |
| 주장적이다 | 4.64(1.66) | .64 | 109.34 | .77 |
| 추진력 있다 | 5.05(1.54) | .73 | 86.94 | .75 |
| 자기확신이 있다 | 5.26(1.75) | .72 | 91.40 | .71 |
| 2. BC(비판/통제) | | | | |
| 비판적이다 | 4.45(1.86) | .67 | 148.00 | .77 |
| 당돌하다 | 3.65(1.79) | .68 | 128.02 | .76 |
| 통제적이다 | 4.00(1.85) | .64 | 127.62 | .74 |
| 자기중심적이다 | 4.47(1.77) | .68 | 142.48 | .73 |
| 오만하다 | 3.20(1.62) | .67 | 149.38 | .73 |
| 3. DE(냉담/배타성) | | | | |
| 불평이 많다 | 4.24(1.74) | .57 | 166.01 | .68 |
| 등명스럽다 | 3.56(1.64) | .61 | 168.64 | .68 |
| 냉소적이다 | 3.60(1.62) | .64 | 176.92 | .62 |
| 배타적이다 | 3.53(1.67) | .59 | 176.46 | .59 |
| 의심이 많다 | 4.41(1.74) | .46 | 184.65 | .57 |
| 4. FG(회피/고립) | | | | |
| 비사교적이다 | 3.44(1.69) | .59 | 222.12 | .66 |
| (대인관계에서)불안하다 | 4.03(1.77) | .57 | 225.33 | .60 |
| 고립되다 | 3.45(1.62) | .66 | 229.88 | .60 |
| 회피적이다 | 4.00(1.64) | .57 | 221.53 | .60 |
| 무미건조하다 | 3.64(1.58) | .50 | 232.22 | .57 |

주 1) $n=468$, 8점척도(1~8)상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2) 각 문항과 해당하위척도 총점간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3) 각 문항이 친애차원(α 축)과 이루는 각도(degree)

4) 각 문항과 원점간의 거리

계 속

| 하위척도 문항 | 평균(표준편차) ¹⁾ | 총점과의 상관 ²⁾ | 각도 ³⁾ | 벡터길이 ⁴⁾ |
|---------------|------------------------|-----------------------|------------------|--------------------|
| 5. HI(비주장/소심) | | | | |
| 수동적이다 | 4.21(1.76) | .74 | 264.95 | .77 |
| 비주장적이다 | 4.36(1.91) | .67 | 275.31 | .76 |
| 자신없다 | 3.99(1.99) | .69 | 260.29 | .75 |
| 소심하다 | 4.60(1.99) | .70 | 267.04 | .73 |
| 유약하다 | 4.06(1.78) | .71 | 268.39 | .73 |
| 6. JK(순응/양보) | | | | |
| 순박하다 | 5.05(1.71) | .70 | 319.59 | .75 |
| 양보하다 | 5.45(1.56) | .63 | 331.95 | .74 |
| 순진하다 | 5.09(1.81) | .69 | 323.61 | .74 |
| 타인중심적이다 | 4.62(1.95) | .56 | 293.57 | .68 |
| 고분고분하다 | 4.42(1.79) | .56 | 295.16 | .66 |
| 7. LM(온화/친절) | | | | |
| 정답다 | 5.65(1.37) | .78 | .43 | .80 |
| 친근하다 | 5.91(1.25) | .75 | 3.52 | .79 |
| 친절하다 | 5.90(1.24) | .76 | 7.90 | .75 |
| 아량이 넓다 | 5.52(1.37) | .74 | 6.53 | .73 |
| 인정이 많다 | 5.95(1.30) | .73 | .39 | .71 |
| 8. NO(사교성/쾌활) | | | | |
| 생기있다 | 5.57(1.48) | .76 | 41.52 | .79 |
| 쾌활하다 | 5.68(1.56) | .77 | 39.59 | .78 |
| 사교적이다 | 5.55(1.59) | .74 | 38.19 | .73 |
| 발랄하다 | 5.59(1.47) | .75 | 48.53 | .71 |
| 외향적이다 | 4.91(1.75) | .69 | 53.26 | .69 |

주 1) $n=468$, 8점척도(1~8)상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2) 각 문항과 해당하위척도 총점간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3) 각 문항이 친애차원(x축)과 이루는 각도(degree)

4) 각 문항과 원점간의 거리